

大巡思想의 信條 : 安心·安身

朴昇植*

目次

- | | |
|---------------|--------------|
| I. 序論 | |
| II. 信條의 意味 | 2. 不安과 宗教 |
| III. 人間의 理解 | 3. 安心·安身の 意義 |
| 1. 人間의 特性 | V. 安心·安身の 實現 |
| 2. 마음의 理解 | 1. 陰陽合德의 完成 |
| 3. 心身關係 | 2. 良心에 따른 生活 |
| IV. 不安과 安心·安身 | 3. 修道生活 |
| 1. 不安의 意味와 原因 | VI. 結論 |

I. 序論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신조(信條)인 安心·安身·敬天·修道 중 安心·安身を 연구한 것이다. 신조는 창도주(創道主)인 강증산(姜甌山)의 진리와 사상을 감오(感悟)한 조정산(趙鼎山)이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면서 종지, 목적 등과 같이 정한 것이다.

안심·안신은 각종 복잡한 문제가 많고, 여러 요인에 의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극도로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라 생각한다.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비관적 견해가 많다. 인류는 고도의 산업화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중대한 과제가

* 행정학 박사

되고 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기적 문제조차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 전망과 대안의 탐색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 한다.¹⁾

Alvin Toffler는 인간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적응과탄(adaptational breakdown)의 신체적·심리적 충격 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부적응 현상(不適應 現象)을 미래충격(Future Shock)이라 한다. 미래충격은 신체적인 부적응과 심리적 불안으로 정신쇠약, 신경과민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 한다.²⁾

한편 우리 사회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갑자기 닥쳐 온 외환부족과 경기침체로 IMF 관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構造調整에 의한 大量 失職은 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실업자의 급증과 빈곤층의 증가는 사회 전체를 혼란시키고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있다. 노숙자, 비자발적 실업자들과 빈곤층의 자포자기, 결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ADD 증후군(After Downsizing Desertification Syndrome)이라는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직자는 물론 퇴직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희망도 정신도 에너지도 창의력도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는 정신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문제는 항상 있었지만,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난치병의 증가와 같은 건강문제,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이변 등으로 현대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류가 멸망할 지도 모르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문제는 물론,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안심·안신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조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보고, 인간에 관한 이론, 安心·安身の 의의와 실현 방안에 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1) P.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 Random House, 1993).

2) Alvin Toffler, *Future Shock*, 李揆行 譯, 미래쇼크(서울 : 韓國經濟新聞社, 1996), p. 321.

II. 信條의 意味

신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있는 생각', 또는 '신앙의 개별 항목' 이라 한다.³⁾ 전자는 신조의 일반적 의미이고, 후자는 종교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의 신조는 개인이 굳게 믿고 있는 생각으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신조는 개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체계를 말한다.

'신앙의 개별 항목'이라 한 신조의 종교적 의미는 敎理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종교적 의미의 신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굳게 믿는 신념으로서 신앙의 정당성을 갖게 하는 교리의 역할을 한다. 교리는 하나의 종교가 형성된 배경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당성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교리는 종교 창시자의 계시, 종교가 형성되어 온 과정과 신앙체계의 정당성을 확립하게 한다. 이러한 교리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교리는 신화와 종교 체험의 형태로 전승되어 온 자료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는 기능을 한다.

둘째, 교리는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표상 해 주고 있는 종교 상징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준다.

셋째, 교리는 전통을 현대 과학에 맞게 재해석해 준다.

넷째, 교리는 세계관을 제시해 준다.

다섯째, 교리는 사회를 규정한다. 특정 사회에 소속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교리를 존중해야 하며, 다른 것들은 이단(heresy)으로 규정한다.

교리는 창시자의 여러 신화와 종교인들의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교리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여러 교리가 종합하여 한 종교의 교리를 형성하여 비체계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모든 교리들은 公理나 定理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 많다. 그러나 교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신앙생

3) 李熙昇, 옛센스 國語辭典(서울: 民衆書林, 1989), p. 1575.

4) Ninian Smart, *Worldviews: Crosscultural Explorations of Human Beliefs*, 강돈구 역, 현대종교학(서울: 청년사, 1986), p. 126.

활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신앙생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리들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체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앙이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교리는 宗旨, 信條, 目的, 修道, 訓誨, 守則 등으로 구성되었다. 종지인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에 관해서는 大巡思想論叢 제2집 - 제5집에서 개별적으로 각기 연구하였고, 제6집에서 종합하여 연구한 바 있다. 종지는 대순사상의 요체로써 우주와 인간생활의 기본원리 등을 함축하고 있다. 음양합덕은 우주와 인간 사회의 구성과 변화 원리를 담고 있으며,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해원상생은 선천세계에 쌓인 원한을 완전히 해소하고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생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윤리적 차원이고, 도통진경은 인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이상세계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신조는 이러한 종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앙생활과 인간생활에서 지켜야 할 원리이며 실현해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신조는 대순진리회의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표상 해 주고 종교 상징들의 의미를 밝혀 주고 있다. 安心·安身·敬天·修道는 대순진리회의 보편성과 신앙생활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다. 신조는 음양합덕에 기초하여 성립된 사상이다. 안심과 안신은 음과 양으로 생각할 수 있고, 경천과 수도도 각각 음과 양으로 볼 수 있다. 안심은 마음이고 안신은 몸에 관련된 것이고, 경천은 하늘의 뜻을 존중하고 믿는 세계관으로서 수도를 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敬天은 우주와 인간사회의 모든 원리는 하늘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인간은 하늘의 뜻과 섭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수도는 곧 하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에 따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안심·안신과 경천·수도도 음과 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심·안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의 원리를 존중할 수 없고 나아가 바른 수도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安心·安身은 이율령(二律令)이라 하여 더욱 강조하고 있다. 安心·安身을 수행의 훈전(訓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굳게 믿어야 할 지침이며, 신앙생활

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서 수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신조는 현대 과학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고, 세계관을 제시해 주고 있다. 安心·安身은 현대 심리학과 정신분석 등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敬天·修道는 대순진리회의 세계관과 종교철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을 구성하는 종지와 신조는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종지는 인간과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원리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 목적을 밝혀 주고 있으며, 신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태도와 윤리관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종지와 신조에 함축된 사상과 철학적 성격은 체계적이고 현대과학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과 윤리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안심·안신은 인간에 관한 과학적 해석과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불안한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커지고 있다. 안심·안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정된 생활과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상이다.

Ⅲ. 人間의 理解

안심과 안신은 인간의 마음과 육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철학자들에 의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근대에 인간 연구는 심리학에 의해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실증적, 실험적 연구를 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는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 과제로 삼아 인간의 총체성(總體性), 인간의 전인격을 실험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연구방법의 문제와 인간의 다양한 특성 등으로 인간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인간에 관한 연구는 과학적 연구와 철학적 관점의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정신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인간 행동인 자유, 도덕적 양심, 종교적 감정과 같은 것은 철학적 기반이 없이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특성, 인간의 마음과 心身關係 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人間的 特性

인간은 육체와 생리적 기능에 있어서 동물계에 속한다. 동물의 기능은 본능, 즉 특정한 행동양식에 의해 결정되며, 이 특정한 행동양식은 타고난 신경구조에 의해 결정된다.⁵⁾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본능에 의해 생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리적 기능면에 있어서는 동물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동물과는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동물적 속성과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 복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동물적 속성을 탈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아무리 발달하고 생물학적으로 진화하였다 하더라도, 생존의 기본적 요소는 항상 남아 있다. 동물은 자연의 생물학적 법칙에 따라 생활하여 자연의 한 부분이며, 결코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 인간도 이러한 동물적 생활의 한계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동물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유한성을 갖고 있다.

둘째, 인간은 동물계에 속하지만, 동물과는 달리 자아의식, 이성과 상상력 등을 갖고 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지능이 가장 발달한 진화된 존재이다. 지능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고력을 사용하여, 본능적으로 규정된 행동양식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지능을 갖고 있어, 본능적인 행동을 규제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셋째, 인간은 욕구 충족의 존재이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생존의 문제인 본능적 욕구 충족은 물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수동적 적응을 하는 본능적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인간의 욕구는 육체적인 본능적 욕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특이성에서 연유한 욕구가 중요하다. 인간은 동물적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욕

5) E. From, *The Sane Society*(New York : Rinehart and Winston, 1955), 金炳翼 譯, 健全한 사회(서울 : 汎文社, 1984), p. 26.

구에 의해 움직인다.

넷째, 인간은 윤리적 존재이다. 인간은 감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성과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인간은 감성과 육체의 동물 영역에서 생기는 생물적 동작과 사건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만이 가진 고유의 이성능력과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행동해야만 한다.⁶⁾

인간의 행동은 충동적·생리적 운동과 이성적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충동적·생리적 운동은 햇빛에서 눈을 감거나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충동적·생리적 운동은 윤리적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인간적 행위라 하지 않는다. 인간적 행위는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내적 동기와 수단으로서의 행동과 결과가 포함된다. 인간적 행위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간적 행위에 대한 평의 보상은 인과적(因果的), 또는 도덕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⁷⁾ 인과적 책임이란 행위의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도덕적 책임은 도덕적·법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윤리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양심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어떤 욕구는 억압해야 하는가를 지시한다. Jung에 따르면 양심이란 특수한 知, 또는 의식이라 한다. 양심은 아는 것(知)이라 한 것은 행동의 동기에 관해서 갖는 감정적인 가치를 말한다. 아는 것(知)은 주관적인 價値判斷이면서도 객관적인 知的確認이기도 하다는 것이다.⁸⁾

인간은 모순된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른바 바른 마음과 그릇된 마음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도덕규범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덕규범을 탈피하려는 마음도 갖게 되는 데에서 모순과 갈등이 생긴다. 인간은 양심에 의해 도덕적 행동을 하고자 하면서도, 양심과는 다른 행동을 하여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워 한다.

다섯째, 인간의 본성에는 순응성(順應性)이 있어서 환경요소에 적응하면

6)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敎文社, 1987), p. 22

7) Glenn Langford, *Human Action* (New York: Doubleday and Co., 1971), p. 3.

8) 徐培植, 人間이란 무엇인가?(서울: 正民社, 1990), pp. 309-314..

서도, 환경을 활용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것이다. 반면에 인간은 동물과 같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환경을 활용하여 인간 생활의 편리함과 향상을 가져 왔다. 인류 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환경을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환경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인 세계를 변화시켜 온 것과 같이, 인간 자신도 변화시켜 왔다. 이는 인간이 자기 창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 인간이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한 것은 자기 창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인간은 의식의 작용 말고도 내적 지각이나 내관(inrospection)과 같은 특별한 유형의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관이란 어떤 종류의 知覺으로 상정된 것을 나타내려는 용어이다. 내관은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한 관찰만이 아니라, 정신상태나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¹⁰⁾ 내관은 주의집중이 필요하여 의식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의식은 정신적 과정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항상 정신적 집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관은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신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은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항상 갖고 있지만, 내관은 특별한 관심과 집중을 할 때에만 나타나는 심리작용이다.

2. 마음의 理解

정신분석이론을 창시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의 마음은 原初我(id), 自我(ego)와 超自我(super ego)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원초아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본능적 충동, 특히 성적 본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원초아는 처음에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신체적 자극을 반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방출하려 하는데, 방출되지 않을 때에는 긴장을 하게 된다. 원초아는 흥분, 또는 긴장을 방출하는데 쾌락원리에 의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한다. 원초아는 심적 에너지를 논리, 가치, 도덕과 무관하여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잠재되

9) 金炳翼 譯, 전계서, p. 20.

10) 상계서, p. 211.

어 있다고 한다.

자아는 성격의 합리적·현실적 내용으로 개인적 의식을 갖게 한다. 원초아의 충동적 욕구나 행동은 현실에서 비난과 상벌(賞罰)의 대상이 되어 긴장을 증가시키므로 합리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 자아는 현실적으로 원초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찾으려 하는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방법이 생기거나 발견될 때까지 원초아의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도 한다.

자아에 의해 형성된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세계가 의식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는 정신 세계를 무의식이라 한다.¹¹⁾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 생각, 마음, 느낌, 이념, 과거, 세계 등 자신이 연상되는 정신적 내용은 모두 의식이다. 인간에게 의식은 매우 작은 일부분이고, 무의식은 무한하다고 한다. 무의식은 Jung에 의하면 인간이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고 있는 정신의 모든 것이다. 무의식은 내 마음도 생각대로 행할 수 없는 강박증, 그리고 의식의 힘이 미치지 않는 어떤 미지의 힘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무엇에 이끌려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자아는 外界(external world)와 관계를 맺으며, 한편으로는 나의 마음인 內界(internal world)와 관계를 갖도록 한다. 사람이 사회나 현실 생활에 적응해 가는데, 인간은 일정한 태도와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적응 수단은 대부분 어느 집단에 共有된 수단으로서, 개인에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사람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갖는 데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外的人格(external personality)이라 한다.

외적 인격에 비해서 내적 인격(internal personality)이 인간의 마음에 존재한다. 이러한 내적 인격을 Jung은 마음(seele)이라 한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내적 인격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의 마음은 아니마(Anima)라 하고 여성의 마음을 아니무스(Animus)라 하였다. 외적 인격이 자아가 외계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라면, 내적 인격은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11) 李符永, 分析心理學 : C.G.Jung의 人間心性論(서울 : 一潮閣, 1987), p. 41.

무의식이란 의식되었던 것이 억압된 것들도 있고, 단순히 잊어버린 것들도 있으며,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서 의식되지 못한 심리적 대응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무의식은 출생 이후의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의미에서 個人的 無意識이라 한다.

그리고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의식에 의해서 인식되지 못한 채 정신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무의식은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 내재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를 集團的 無意識이라 한다.

의식의 주체인 자아는 정신의 의식된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나의 전체를 자각하려면 무의식적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 가는 의식화의 과정이 필요하다.¹²⁾ 인간이 무의식을 인식해 가는 것은 인간의 자기실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실현은 개성화로서 자신의 전체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성화는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여 자기 자신, 또는 본연의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편의적이라고도 한다.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설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의식과의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하여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회의적인 학자도 있고, 무의식은 미지의 영역이라서 명료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평소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중성향(二重性向)을 갖고 있는 데에 잘 나타난다. 의식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未分化된 채로 남아 있는 원시적 심리, 심리적 특성이 무의식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무의식은 때로는 외계에 대상으로 투사되기도 하고, 자아가 처음 의식할 때에는 미숙하고 열등하고 부도덕하다는 등 부정적 인상을 주어 자아의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한편 초자아는 자아로부터 발달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이다. 초자아는 양심적 자아로서 양심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인격적 측면

12) 상계서, p. 43.

이라 한다. 초자아는 경험에 의해서 발달하는데, 자아의 행동을 통제한다. 인간이 비도덕적 행동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이것은 초자아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하면 자아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초자아는 원초아의 충동과 욕구를 억제하게 하여 자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한다고 한다. 초자아는 처음에는 의식되지만 차츰 무의식이 되어 행동을 통제한다.

원초아와 자아, 초자아의 관계는 엄격하게 구별할 수 없으며, 세 개가 하나의 전체적인 성격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작용을 수행한다.

3. 心身 關係

인간에 대한 철학적 연구에서 중심이 되어 온 것은 유물론(唯物論)인데, 유물론적 이론이 바탕이 되어 논의되어 온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心身同一說(psycho-physical identity theory)이다. 사람의 마음과 몸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특수한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³⁾ 그리고 정신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정신이 인간의 두뇌 작용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물론은 물질적인 것과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에서 일원론이라 할 수 있다.

유물론은 순수한 정신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숙명적인 운명론에 빠지게 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몸은 다른 물체와 같이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자연법칙은 모든 자연현상을 결정론적인 인과법칙(因果法則)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계적 변화만이 가능하며 기계적 변화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현상은 물론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물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인간 활동은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활동은

13) 蘇興烈, “과학적 철학의 인간개념,” 申午鉉, 人間의 本質(서울 : 螢雪出版社, 1989), p. 262.

내면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상태와 과정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뿐이다. 육체적 활동은 公的이고 物理的 世界이지만, 정신의 세계는 私的 世界의 일이다. 자신의 육체를 포함한 물리적 세계의 사건과 사물들은 외적이고, 정신의 제 작용은 내적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활동은 외부로 나타나 인지할 수 있지만, 정신 작용은 내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 의지, 정서, 사고 등은 의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어떠한 형태로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¹⁴⁾ 데카르트가 정신과 육체를 분류하여 설명한 이후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고, 논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의지가 육체의 각 기관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귀와 눈 등의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각작용(知覺作用)에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세계인 육체의 활동과 정신적 세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 상호관계란 표현은 물리적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정신적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어떻게 육체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적 활동이 정신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Fromm은 인간 행동의 바탕에는 성격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어, 성격의 특성은 행동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한다. 성격의 기본적인 실체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체라 한다.¹⁵⁾ 인간이 세계에 대하여 관계를 갖는 것은 사물을 획득하고 소화하는 동화(同化)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관계시키는 사회화의 두 과정이 있다. 두 과정 모두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 결정되거나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다. 그리하여 성격은 동화와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유형이라 한다. 성격은 동물의 본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발달시켜 온 것에 의하여 각 개인은 비교적 일관된 행위를 한다고 한다.

14)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 Barnes & Noble, 1984), 이한우 옮김, 마음의 개념 (서울 : 文藝出版社, 1994), p. 15.

15) 金炳翼 譯, 전계서, p. 337.

인간은 제 각기 성격에 따라 인생을 설계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 조화시켜 나간다. 사람은 세계에 대한 태도를 관념과 판단에 따라 확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개인의 성격과 활동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은 사회적 구조의 심적매체(心的媒體)로서 가족에게 적응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사회계급이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성격을 형성하면서 사회생활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있다. 이것이 사회적 성격(social character)이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성격은 부모의 성격차이, 사회환경의 심리적·물리적 차이, 기질의 차이 등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 성격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기질과 체질 등의 차이는 동일한 환경을 전혀 다른 것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환경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IV. 不安과 安心·安身

1. 不安의 意味와 原因

(1) 不安의 意味

안심·안신의 의의를 이해하려면, 안심·안신과 상반관계(相反關係)에 있는 불안(不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불안을 해소한 것이 안심·안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불안은 정신과 육체에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이 안정되고 건강해야만 한다.

Fromm은 인생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단정한다. 자유로운 인간의 불안은 필연적인 것이고, 사고하는 인간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¹⁶⁾ 인간은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과 하잘 것 없음에 불안 해 하고,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과 무상(無常)을 불안 해 하고,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는 불안한 존재라 한다.¹⁷⁾

16) 상계서, pp. 185-186.

이와 같이 인간은 심리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존재이다. 불안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불안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 불안은 막연하게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불안 해 하던 일이 생겨서 경험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불안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의욕을 갖게 하고,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도 한다. 불안 심리가 인간의 생활 향상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하는 긍정적 기능도 한다.

인간의 불안은 정신과 심리 상태에 관한 것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건강은 인간이 인간성의 본질과 법칙에 따라 성숙하였을 때 얻어지며, 반대로 정신 질환은 이와 같은 발전에 실패하였을 때 생긴다. 따라서 정신건강은 개인이 특정의 사회질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적응 상태에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나 이상적인 적응상태를 보이는 경우는 판단이 용이하겠지만,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심리적, 또는 정신적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들은, 통계적 기준, 주관적 심적 고통, 적응성 등이 있다. ① 동일 연령층이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에서 크게 일탈한 경우를 비정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 기준이다. ② 심리적 고통이 심리장애로 나타나 일상 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가가 주관적 심적 고통 기준이다. ③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적응성 기준이다. 어떠한 행동장애나 심리상태가 사람이 생활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해 가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면 비정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¹⁷⁾

심리적·정신적 비정상의 원인의 하나가 불안이다. 불안은 사람의 신체

17) Paul J. Tillich, *Courage to Be*, 현영학 역, 존재에의 용기(서울 : 기독교서회, 1959).

18)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서울 : 도서출판 서원, 1996), p. 184.

적·심리적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불안은 어떤 위협, 재난과 같은 큰 불행이 닥쳐올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다. 불안은 상상적인 위협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쾌감, 짜증, 우울, 긴장, 흥분상태 등을 말한다. 불안은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경험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물건에 대해서만 심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갈등으로 긴장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정서불안은 모든 자극에 정상반응보다는 이상반응을 하게 되고, 긴장 해소가 유해하게 되어 더욱 불안을 조장시키기도 한다.

불안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증상은 ① 몸이 떨리고 긴장하여 놀라기 쉽고, 안절부절하는 운동성 긴장, ② 가슴이 뛰고 침이 마르고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 설사, 배탈 등 자율신경기능의 항진을 의미하는 신체적 증상, ③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④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 집중이 어렵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하고, 때로는 불면증을 보이는 등 다양하다.¹⁹⁾ 불안한 상태에서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더욱 불안하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향한 욕구가 있다. 인간은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안전의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2) 不安의 原因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인데,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인간의 불안에 대해 Sigmund Freud는 인간의 본능적·성적 측면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과 성적 충동과 사회적으로 금기(禁忌)하는 것들 사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Otto Rank는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들은 열등감, 부적합성, 죄의식이라고 하였다. Karen Horney는 다른 사람을 앞지르려는 경쟁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 사이에서 오는 적대감을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²⁰⁾

인간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불안은

19) 상계서, p. 186.

20) Rollo May, *Man's Search For Himself*, 양견 역, 인간자아탐색(서울 : 大旺社, 1984), p. 14.

자연적, 사회적, 개인적인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적 불안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존하는데, 자연환경은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 인간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와 재앙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자연적 재해를 피하기 위해 자연을 숭배하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19세기의 많은 인류학자, 고전 연구가, 언어학자들이 종교 연구를 위한 방법론을 자연-신화학파(natural-myth school)라 한다. 이 학파의 주장을 보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의 가장 위대한 상징들은 자연 현상의 인격화라 한다. 해, 달, 별, 폭풍, 계절 등이 인격화된 것이 종교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원시 종교는 태양 신화가 가장 중요하고, 원시 제의와 신화는 본래 태양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한다.

Edward Tylor는 종교의 기원이 돌이나 동물이나 인간의 몸 등과 같은 물체에 붙어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물질과는 상관없이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비물질적 靈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초경험적 영이나 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신앙을 애니미즘(animism)이라 하였다.²¹⁾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의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우주 만물은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능력인 정령(精靈)이 있으며, 정령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무생물을 생명이 있다고 믿고, 동물을 숭배하고, 정령을 숭배하는 원시신앙을 애니미즘이라 한다. 애니미즘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느끼는 불안을 극복해 보려는 원시적 신앙으로서, 대부분의 민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적 불안은 현대사회에서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자연적 불안은 자원부족과 환경 파괴, 기상이변 등이다. 인류의 생활 향상을 위한 자연개발은 경제성장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자연개발은 환경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경제성장은 자연과 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각종 오염물질과 폐수, 각종 쓰레기들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되어,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는 相衡關係(trade-off)에 있다.²²⁾

21) W. Richard Comstock, *Religion and Man*, 尹元徹 譯, 宗敎學：方法論의 諸問題와 元始宗敎(서울：展望社, 1983). p. 11.

22) 李正典, “所得分配의 측면에서 본 環境問題”, 環境論叢, 第23卷(서울大學校 環境

오늘날 환경문제는 경제성장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4차 총회에서는 끔직한 자연재앙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유엔환경협약 등 환경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은 지구 온난화(溫暖化)가 가속화되면서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 내려 해수면이 상승하며 자연림이 파괴되는 등 엄청난 재해를 예고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태풍과 허리케인 등 열대성 폭풍우의 발생을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기후 변화는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등 가스에 의한 온실 효과가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50년 후 지구의 허파인 숲은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온난화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 한다. 온난화는 가뭄과 가뭄으로 인한 숲의 소멸, 산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습지의 파괴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농작물의 생산량을 급감시키고 각종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 한다.

사회적 불안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데에서 불안이 생기기도 한다. 인간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는 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자아의식과 자기 신뢰가 약화되어 불안하게 된다.

그리고 불건전한 사회는 상호간에 적의(敵意)와 불신감을 일으키고 타인을 이용해 착취하는 도구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해진다.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사회구조와 의식이 변화되면서, 인간사회는 상호간에 적대감과 불신이 확산되어 인간은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속박에서 벗어났지만, 고독에서 불안과 무력감에 젖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데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갖지 못하고 있다. 자주성의 결여, 결정할 능력이 없는데 대한 슬픔 등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여 동요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 현대인의 고독감은 외부세계와의 격리, 또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다.

현대인들은 사회 적응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정신위생의 징후는 자살, 살인, 알콜중독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자살은 정신적인 건강과 안정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살은 빈곤이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세계에서 빈곤한 나라의 자살율이 낮으며, 물질적으로 번영한 나라의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선진국가가 빈곤한 후진국보다 오히려 자살이 더 많은 것은, 선진국이 불안과 정신질환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에서 자살율이 높다는 것은 정신건강의 결여에 원인이 있다.

서구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생활, 비교적 평등한 부의 분배, 안정된 민주주의와 평화인데, 바로 이러한 목표들에 접근한 나라들이 정신적 불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질적 풍요는 물질적 만족은 주어도 한없는 권태감을 불러와 자살과 알콜 중독으로 권태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불안은 인간이 사회생활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불안은 정서나 동기가 다른 정서나 동기와 충돌되는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생긴다. 갈등으로 긴장하게 되면 정서불안이 일어나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극에 정상 반응보다는 이상반응을 하게 되고, 긴장 해소가 유해하게 되어 불안을 조장시킨다.

2. 不安과 宗教

불안은 종교적 욕구를 갖게 한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고, 불안을 벗어나려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 또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인간적 욕구에 의해 행동하는데, 인간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3) 金炳翼 譯, 전계서, p. 14.

이러한 근본적 불만에서 인간은 종교적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 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 생활에서 종교적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욕구불만과 좌절, 불안한 생활에서 절대자에게 의존하여 심신의 안정과 평안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욕구좌절상황이 자발적 종교적 태도를 갖게 하며, 종교는 욕구좌절에 대한 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²⁴⁾ 특히 인간은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이 절대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한다. 죽을 위험에 놓인 극한상황과 비참한 상태에서 무능한 인간은 가장 적극적으로 종교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유한하고 불안정한 인간은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서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하고 도움을 갈구하는 종교적 욕구를 갖는다.

욕구좌절과 위기상황에서의 종교적 태도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욕구좌절과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종교적 태도는 일시적이고, 상황이 바뀌면 절대자에게 약속한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²⁵⁾

올바른 종교심이라 할 인격적·종교적 태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성한 의무와 함께 참된 종교인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이 절대자에게 죄책감을 갖는 것은 인격적 종교심을 갖는 기본적 충동이라 한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과실(過失)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종교라 하고, 죄책감은 종교 발생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 한다.²⁶⁾ 죄책감은 종교를 믿기 전에도 나타나는데, 종교는 과실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죄책감의 구성하는 감정은 상실된 자유를 회복하려는 부담감,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충동하는 일반적 불안, 양심의 가책,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상황에서 탈피하려는 정향, 고독감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등이 있다.

24) 윤주병, 종교심리학(서울 : 서광사, 1986), p. 101.

25) 상계서, p.102.

26) 상계서, p. 103.

인간이 체험하는 죄책감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있다. 인간이 체험하는 죄책감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심리에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간이 도덕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로부터 비판받고, 인간다운 태도를 갖지 못하였다는 부담에서 불안감을 갖고 우울한 고독감과 무능함을 느끼게 된다.

종교적 죄책감은 절대자의 교시나 종교적 교리를 충실히 따르지 못하였다는 의식을 가질 때에 체험하게 된다. 종교적 죄책감은 교리에 따른 행동을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적 죄책감은 일반인들의 죄책감과 달리 보다 윤리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3. 安心安身の 意義

(1) 大巡思想에서의 不安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자연재해와 사회의 각종 문제와 병리(病理)들을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순사상은 역사발전을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천세계는 현재의 세계를 말하고, 후천세계는 우주만물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이상세계를 말한다. 선천세계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원리에 따라 경쟁하기 때문에, 갖가지 재화(災禍)가 많아져 참혹한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선천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²⁷⁾라고 하였다.

선천세계가 참혹하게 된 것은 음양의 부조화와 상극법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상극원리는 음양이 각기 다른 존재를 부정하고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선천세계는 억음존양(抑陰尊陽)에 의한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원한이 가득 차서 세상이 참혹해졌다고 한다. 음은 매우 약하고 양은 힘이 지나치게 커져서, 양이 음을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여 음은 원한이 쌓이게 된 것이다. 상극법칙에 의해 인간과 만물은 약육강식의

27) 典經, 공사 제1장 3절, p. 98.

로 원한이 쌓여 있으며, 天氣가 고르지 못하여 재해와 재앙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겨서 우주 만물이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고 한다.

음양의 부조화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도 불균형 상태에 있다. 자연은 각종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초과하여 자연의 본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자연이 인간에 대해 원한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과의 부조화로 인한 원한이 커다란 재앙과 질병을 가져오고 있다. 과학 기술의 고도화로 인간 생활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불완전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류가 발전시킨 현대 문명은 불완전하여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류가 멸망할 지도 모를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대순사상에서는 물질문명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天理를 무시하고 자연을 정복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여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에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²⁸⁾라 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이 인류의 생존 위기를 가져 왔다고 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원한이 쌓이고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²⁹⁾ 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불안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는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욕망을 갖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경쟁 상태에 있어 모두가 충족시킬 수 없다. 욕망을 충족시키려 경쟁하는 과정에서 인간사회는

28) 典經, 교운 제1장 9절, pp. 155-156.

29) 典經, 교법 제3장 24절, p. 254.

불안해지고, 충족시키지 못하면 큰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인간의 과욕과 허욕이 불안의 중요한 원인이다.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만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욕구나 허욕을 갖게 되면, 정상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갖가지 죄악을 짓게 된다. 즉 양심에 따른 생활을 하지 못하여 갈등을 느끼고 불안하게 된다.

(2) 安心·安身の 意義

대순진리회에서 안심·안신은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의 훈전(訓典)으로 삼고 있다. 안심·안신을 이율령이라 한 것은 수도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심·안신은 수행의 기본적인 원리이며, 동시에 수행에서 얻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안심·안신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생활을 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심·안신의 상태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물욕이나 허욕 등에 의해 항상심(恒常心)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안심·안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통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데,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데에서 고통은 시작된다. 대순사상에서는 능력과 분수에 적합하지 않은 과도한 욕구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안심은 욕구의 안정을 의미하며, 욕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안심은 “사람의 행동의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偏僻)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한다.”³⁰⁾ 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30)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p. 15.

안신은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禮法)에 맞지 않는 허영(虛榮)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³¹⁾고 한다. 안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모든 행동을 법례와 도리에 알맞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 안신은 육체적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안심은 인간이 천성인 양심을 유지하고, 안신은 양심에 따라 예법에 맞는 인륜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몸과 마음은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음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여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만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허욕을 갖고 있으면,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심·안신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로서,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의미한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심·안신은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의 해소와 행복한 생활을 위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정신(마음)이 육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안심·안신을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정신위생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신위생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호감을 주며 자신도 만족감을 갖는다.³²⁾

이러한 안심·안신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중심이며, 인간 행동의 주체적 기능을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천지지중양심야 고동서남북신의어심(天地之中央心也 故東西

31) 上揭書, p. 15.

32) 張秉琳, 鄭漢澤, 心理學(서울: 博英社, 1983), p. 149.

南北身依於心)³³⁾ 이라 하여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고, 몸은 마음에 따라 행동한다고 한다.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³⁴⁾하므로, 인간의 언어와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마음은 인간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해야만 한다. 옳은 일도 실행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으므로, 실행하겠다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³⁵⁾

둘째, 인간의 마음은 良心과 邪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양심은 인간이 타고난 천성으로 본 마음이며, 사심은 物慾에 의하여 나타나는 욕심이라 한다. 양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인성의 본질인데, 물욕으로 인한 사심에 의해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天性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한다.³⁶⁾

셋째,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마음과 몸은 동일한 것으로 몸은 마음을 따른다고 한다. 수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닦고 몸으로 행동하여 심신(心身)이 일치(一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³⁷⁾고 하여, 먼저 마음을 바로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심신일치(心身一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저지르는 각종 죄악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 데에서 나타나는데, 죄에 대한 벌은 몸이 받게 된다고 한다.³⁸⁾

넷째, 인간의 건강은 마음이 평안한 데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한다. 인간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心身安泰)³⁹⁾ 하여, 육체적 건강은 정신적 안정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한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病自己而發)”⁴⁰⁾ 하여, 병은 자신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병이 마음에 따라 생긴다(諸病從心起) 하여 마음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한다.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한 데에서 병이

33) 典經, 교운 제1장 66절, p.183.

34) 대순지침, p. 48.

35) 대순지침, p. 52.

36) 大巡眞理會 要覽, pp. 18-19.

37) 대순지침, p. 45.

38) 대순지침, p. 49.

39) 대순지침, p. 49.

40) 대순지침, p. 49.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대병지약(大病之藥)은 안심·안신”이라 하여 인간의 큰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몸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몸의 병에는 약이 있으나, 마음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身病可藥 心病難醫)⁴¹⁾ 한다. 아무리 큰 병이라 하더라도 안심·안신을 이루면 고칠 수 있지만, 안심·안신이 안 되면 병도 고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

다섯째, 어질고 착한 마음이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원리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仁善의 自誠이 道誠의 定石이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⁴²⁾ 고 하여 誠實한 마음이 없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仁善을 스스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道를 성실하게 닦는 기본이라 한다.

그리하여 “먼저 나의 마음을 참되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 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先誠吾心 以誠他心 先敬吾身 以敬他身 先信吾事 以信他事)”⁴³⁾고 한다. 대순사상에서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도통진경도 마음을 바로 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은 마음에서 뜻이 생기고, 뜻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참되어야 참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마음과 뜻과 행동이 참되어야 도통진경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⁴⁴⁾

여섯째, 마음은 신의 뜻을 받아들이고, 신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신의 중요한 용사기관이요, 신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길이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道路也)”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신인조화라 하는데,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神爲陰 人爲陽 陰陽相合然後 有

41) 대순지침, p. 49.

42) 대순지침, p. 51.

43) 대순지침, p. 70.

44) 상계서, p. 70.

變化之道也)”⁴⁵⁾하여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신과 인간이 상합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마음이, 그 기능을 한다고 한다. 신의 뜻은 인간의 마음을 통해 전달되고, 인간은 마음을 통해서 신의 뜻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일곱째, 마음은 성공의 기초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한 마음(一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한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노력하라고 한다. 성공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⁴⁶⁾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진실로 한 마음을 간직하기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⁴⁷⁾ 하여 일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한다. 진실한 한 마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여덟째, 안심·안신은 인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종교심이라 할 수 있다. 성숙한 종교적 감정은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이나 개념적 원리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응답한 체험을 통하여 구성된 마음가짐을 말한다.

종교는 인간이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욕구와 특정한 가치에 헌신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는데, 이를 종교심이라 한다. 이러한 종교심은 종교생활을 통해 성숙해진다. 성숙한 종교심의 기준은 ① 자아 확장, 즉 감각적인 욕망, 생리적 충동을 초월할 수 있는 자아, 자아 주체성이 확립되고 자기 존재의 위치 등을 인식하게 된다. ②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정신적 발달에 대한 반성과 통찰 능력을 갖고 올바른 인간성을 확립할 수 있다. ③ 체험의 통합, 모든 인격이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모형을 구성하는 통일적인 생활철학은 통일된 인생관을 지향한다. 체험한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가꾸어 나간다고 한다.⁴⁸⁾

45) 典經, 재생 43절, p. 309

46) 典經, 교법 제2장 5절, p. 234.

47) 典經, 교법 제2장 6절, p. 235.

48) 상계서, pp. 225-226.

이러한 성숙한 종교심은 안심 · 안신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안심 · 안신은 자아 주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허세를 버리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된다.⁴⁹⁾고 한다. 진실한 마음을 견지해야 복을 받는다(眞心堅守福先來)⁵⁰⁾고도 한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⁵¹⁾고도 한다.

끝으로, 안심 · 안신은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자아실현은 단순한 지적 통찰만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을 모두 갖춘 전체 성격의 실현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인간이 본질적인 것을 억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명료하게 드러내며 삶의 모든 영역에 근본적으로 통일될 때, 자발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자발적 행동은 인간이 자아를 통일하면서 고독의 공포를 극복하는 길이며, 자발적인 자아실현에 의하여 자신을 외계(인간, 자연, 자기자신)와 연계시킬 수 있다.

자아실현으로서 적극적인 자유는 개인의 독자성을 긍정하고, 타인의 독자성도 존중하는 것이다. 자아의 독자성과 타인의 독자성이 공존해야만 진정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인간성을 부여받으며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운명을 같이 나누며, 평등하게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야만 한다. 인간관계는 지배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대성을 가진 존재로서 상호 존중하여야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다.

V. 安心 · 安身の 實現

안심 · 안신은 인간은 마음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양심을 갖고 항상 바른 행동을 하는 안심 · 안신은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요소라

49) 대순지침, p. 71.

50) 典經, 교법 제2장 3절, p. 234.

51) 典經, 교법 제1장 21절, p. 225.

하겠다. 이러한 안심·안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안심·안신의 실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陰陽合德의 完成

안심·안신은 대순사상의 종지인 陰陽合德이 완성되어야 한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의 각기 고유한 덕을 결합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⁵²⁾ 음양합덕을 안심·안신에 적용해 보면, 인간의 마음은 陰이고 육체는 陽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음과 몸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안심·안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신과 육체가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음양합덕이 완성되어야 가능하다. 음양합덕은 상극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생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음양합덕이 상극원리에 의하면 부조화된 음양합덕이다. 상극법칙에 의한 음양의 분화와 경쟁은 음양이 덕을 바르게 합하지 못하여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음은 매우 약하고 양은 지나치게 커지는 抑陰尊陽의 음양합덕은 원한이 쌓이고, 이로 인하여 인간과 만물이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한다. 이러한 음양의 부조화와 抑陰尊陽은 자연과 인간사회에 모두 나타나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인간사회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음양합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상생원리에 의해서 正陰正陽의 합덕을 이루어야 한다. 正陰正陽의 합덕은 음과 양이 상생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상생이란 관련있는 모든 요소들이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생은 자기 희생적인 이타주의적 태도로서, 자연과 인간사회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원리이며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상생원리에 의한 음양합덕은 신인조화와 해원상생의 실현을 위한 기본이

52)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77), p. 263.

다. 음양합덕에 의해 신인조화의 사상이 형성되었고, 상생원리에 의한 음양합덕은 해원상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인조화는 음양합덕을 신을 음으로 인간을 양으로 인식하고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는 의미이다.⁵³⁾ 신과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신인조화는 마음과 몸이 안정된 안심·안신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해원상생은 인간은 물론 우주 만물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고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이다.⁵⁴⁾ 해원상생은 안심·안신을 실현하는데, 실천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대상사상에서는 원한은 욕구 좌절, 인간과 우주만물의 상극 투쟁에 의해 생긴다고 하는데, 원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은 욕구불만, 시기와 질투 등으로 불안해진다. 따라서 원한을 풀어주고 상생원리에 따라 공존공생하려는 해원상생은 안심·안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윤리라 하겠다.

2. 良心에 의한 生活

안심·안신은 양심을 회복하여 바른 마음을 가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양심은 인간이 타고난 천성으로 본 마음인데, 물욕에 의해 사심을 갖는 데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이 생긴다고 한다. 양심이 인간다운 도덕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현대 윤리학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양심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도덕적 의식이다. 양심은 신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박애심과 자기 사랑과의 조화를 갖게 하는 도덕적 기능을 한다.⁵⁵⁾

양심이 도덕의식에 작용하는 것은 이지적 작용(主知說), 감정적 작용(主情說), 의지적 작용(主意說)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지적 작용이란 양심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인 선악을 분별하고 판정할 수 있는 작

53)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77), p. 546.

54) 拙稿,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大巡思想論叢, 제4집(大巡思想學術院, 1978), p. 180.

55) 金樹澈, 전게서, p. 197.

용을 말한다. 감정적 작용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때에 쾌감을 느끼고, 악한 행동을 보았을 때에 분개하며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한(悔恨)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의지적 작용은 도덕을 실천하고 옳고 바른 행동을 감행하게 하는 의지적 행동을 말한다.⁵⁶⁾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양심에 따른 행동은 훈회(訓誨)를 실천하는 것이다. 훈회는 ① 마음을 속이지 말라, ② 언덕을 잘 가지라, ③ 척을 짓지 말라, ④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⑤ 남을 잘되게 하라 이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이 마음을 속이는 것은 물욕에 의해 사심(邪心)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無自欺)로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언덕의 실행은 양심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한은 말을 잘못하는 데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언덕을 잘 가지라고 한다. 남에게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 원한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미쳐 양자가 모두 큰 화를 입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그가 잘 되고 자신도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⁵⁷⁾

그리고 “말은 마음의 소리요 德은 道心の 자취라.”라 하여 바른 마음을 가져야 언덕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라 하여 말과 행동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바른 행동을 하지만, 그릇된 마음을 가지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을 만드는 척을 짓지 말아야 하고, 척에 의해 원한이 생겼다면 척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척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억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척이 없어야 잘 살 수 있고, 남을 억울하게 하여 원한을 사면 보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척을 짓지 않으면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척을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6) 상계서, pp. 197-198.

57) 典經, 교법, 제1장 11절, p. 223.

남에게 원한을 갖게 하는 척을 짓는 것은 양심이 아닌 사심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양심에 따라 바른 마음을 갖고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⁵⁸⁾ 사심에 의해 척을 짓게 되면 보복을 당해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바른 행동을 하여 척을 짓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과 남을 잘되게 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다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며, 보은을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상생은 원한을 사지 않으며, 원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원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남에게 척을 짓지 않거나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낮은 수준의 인격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고차원의 인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상생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도리이며, 고도의 인격을 쌓으며 생활에 직접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윤리라 할 수 있다.

3. 修道 生活

안심·안신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랑과 이성과 신앙에 의해 사는 사람이며, 자신의 생활과 타인의 생활을 동시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⁵⁹⁾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 행동을 하면서도, 인간애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며,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과 이성과 신앙에 의해 살기 위해서는 수도가 필요하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는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58) 典經, 교법, 제2장 44절, p. 242.

59) 李符永, 전계서, p. 193.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靈通)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수도는 이성의 힘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바른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의 힘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못된 가치에 헌신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롬은 우상 숭배는 원시 종교에서 동물, 산, 바위, 나무,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독재자, 조상, 국가, 정당, 재물, 사상체계 등도 될 수 있다고 한다. 현대에서도 원시종교와 같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획일적으로 강요할 때 우상숭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종교적 행동의 참된 동기는 무의식 수준에 있고, 성격의 심층적 구조와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자극에 대응하는 선택에 의한다고 한다.

종교적 행동의 참된 동기가 무의식 수준에서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修道를 해야만 한다. 무의식은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의식되지 않은 정신세계이다. 이러한 무의식의 개발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일심을 갖게 하려는 수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도는 인륜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것이라 한다. 수도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도리를 충실히 행하여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수도를 해야 도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도통은 대순사상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로서, 도를 환히 꿰뚫어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를 환히 알기 때문에, 밝고 바르며 투명한 세상이 되어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⁶⁰⁾ 이러한 도통은 인간이 마음을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도통은 인간이 수도를 통해 바른 본 마음인 양심을 회복하여 바른 행동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60) 鄭大珍, “道通眞境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5집 (大巡思想學術院, 1978), p. 3.

VI. 結論

이상으로 대순사상의 신조의 의미, 인간의 특성과 마음, 안심·안신의 의의와 실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현대사회는 각종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급속하게 변화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상태에 있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난치병과 각종 사고의 증가 등으로 현대인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불안 해 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현대사회의 각종 문제는 상극원리에 의한 지나친 경쟁으로 원한이 쌓여서 생긴 것이며, 서양의 물질문명이 인류를 교만하게 만들어 天理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현대 과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Georg Picht는 서양과학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파생된 것으로, 형이상학은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론은 논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논리는 독단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한다. 그리하여 서양문명은 인간과 자연, 문화를 파괴한다고 한다.⁶¹⁾ 서양문명은 플라톤 이후 모든 것을 개념화하고 이론화함으로서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 또는 신체,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해서 대상화한 데에서 서양문명의 위기가 나타났다.⁶²⁾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성취하고 실현할 수 없게 하여 정신적 불안과 소외감으로 공허함을 가져 왔다. 과학화는 인간성을 박탈하고 감정을 주관이라 하여 배척하고, 애증(愛憎)의 감정을 상실케 하였고,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모든 인간을 고독에 빠지게 하였다. 현대사회는 脫人間化, 非人間化를 초래하였고,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시켰고, 자존심을 저하시켰다. 그리하여 현대사회를 불건전한 사회라고도 하고, 현대인들은 사회 적응력을 상실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른 종교생활이 필요하다.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인간들은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무한함과 정교한 질서에 더욱 경외감

61) 李東植, “東洋思想과 西洋思想의 만남,”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 東方思想論考(서울 : 鐘路書籍, 1983), p. 883.

62) 상계논문, p. 882.

을 갖게 되고, 초자연적인 힘과 존재에 대한 탐구심을 더욱 키워 나갈 것이라고 한다.⁶³⁾ 현대사회에서는 유전인자의 구조와 우주의 신비를 밝혀 내는 등 인간과 자연과 우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갖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과학적 지식의 확대와 확산이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독감과 공허함 등의 문제, 각종 위기의 해결은 안심·안신의 실현이 중요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안심·안신은 정신과 육체(물질)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종지인 陰陽合德의 완성을 의미한다. 음양합덕은 서양 과학에서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 또는 신체,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을 분리하여 논리를 전개한 데에서 파생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상이다. 상극원리를 상생원리로 전환하여 이분적 사고와 의식을 통합하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안심·안신은 인간의 본성인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邪心을 갖는 데에서 불안은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正心을 갖고 淨心을 해야만 한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느끼는 불안은 양심을 따르지 않고 바르지 못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안심·안신은 수도생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신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도가 필요하다. 불안은 실제적인 사건으로 생기는 것이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인간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해야만 한다. 대순사상에서 수도는 일상생활에서 人倫을 바로 행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는 인격을 완성하고 실제 생활에서 도덕을 실행하는 것이다.

63) 임희섭,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서울 : 도서출판 소화, 1995), p. 256.

【참고문헌】

-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 대순지침.
- 典經.
-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 敎文社, 1987).
-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學術院, 1977).
-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 (大巡思想學術院, 1977).
- 拙稿, “政策研究의 解冤相生的 接近,” 大巡思想論叢, 제4집 (大巡思想學術院, 1978).
- 윤주병, 종교심리학(서울 : 서광사, 1986).
- 李東植, “東洋思想과 西洋思想의 만남,” 道原 柳承國博士 華甲紀念 論文集 : 東方思想論巧(서울 : 鐘路書籍, 1983)
- 李符永, 分析心理學 : C.G.Jung의 人間心性論(서울 : 一潮閣, 1987).
- 李正典, “所得分配의 측면에서 본 環境問題”, 環境論叢, 第23卷(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1988).
- 李熙昇, 엣센스 國語辭典(서울 : 民衆書林, 1989).
- 임희섭,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서울 : 도서출판 소화, 1995).
- 鄭大珍, “道通眞境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5집 (大巡思想學術院, 1978),
- 張秉琳, 鄭漢澤, 心理學(서울 : 博英社, 1983).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서울 : 도서출판 서원, 1996).
- Comstock, W. Richard, *Religion and Man*, 尹元徹 譯 宗敎學 : 方法論의 諸問題와 元始宗敎(서울 : 展望社, 1983).
- From, E., *The Sane Society*(New York : Rinehart and Winston, 1955), 金炳翼 譯, 건전한 사회(서울 : 汎文社, 1984)
- Kennedy, P.,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

Random House, 1993).

Langford, Glenn, *Human Action*(New York : Doubleday and Co., 1971).

May, Rollo, *Man's Search For Himself*, 양견 역, 인간자아탐색(서울 : 大旺社, 1984).

Ryle, Gilbert, *The Concept of Mind*(New York : Barnes & Noble, 1984), 이한우 옮김, 마음의 개념 (서울 : 文藝出版社, 1994).

Smart, Ninian, *Worldviews : Crosscultural Explorations of Human Beliefs*, 강돈구 역, 현대종교학(서울 : 청년사, 1986).

Toffler, Alvin, *Future Shock*, 李揆行 譯, 미래쇼크(서울 : 韓國經濟新聞社, 1996).

Tillich, Paul J., *Courage to Be*, 현영학 역, 존재에의 용기(서울 : 기독교서회, 1959).